

꼭 막힌 중도금 집단대출...속타는 분양시장

최근 3개월 52곳중 17곳만 계약...계약률 95%에도 못구해 제2금융권도 대출 거부 조짐...중소건설사·실수요자 '비상'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꼭 막힌 '돈맥' 상황에 중소기업은 위기를 호소하고 있고, 주택 실수요자인 서민들은 내집 마련 문턱에 한숨만 들고 있다.

5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8일~올해 1월 31일 분양한 사업장 52곳 가운데 2월 20일 기준으로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한 곳은 15곳에 불과했다. 3곳은 분양 계약률이 80%에 미치지 못해 대출 심사가 거부됐지만, 계약을 95%가 넘는 우수사업장 30곳 중에서도 17곳이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대출 규제 이전에는 은행권이 분양 계약 시점부터 중

도금 대출 협약을 확정해줬는데, 이제는 '중도금 납부 한 달 전이 되면 그때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는 식으로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대형사나 분양 계약이 다 끝난 곳도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자금 여력이 없는 중견·중소건설사의 위기감은 훨씬 심각하다.

지역 한 중견건설사는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 최근 분양 계약에 포함된 아파트의 계약률을 최대한 100%에 가깝게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우리는 영업이익률이 10%에 가깝고 부채비율도 낮을 정도로 안정적인 회사지만 대출 심사에 대한 불안

감이 있다"며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일일이 연락해서 1대1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새집 마련 등 주택 실수요자인 서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이다.

은행권이 집단대출을 거부하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제2금융권마저도 집단대출을 거부하겠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여차하면 계약자가 각자 알아서 중도금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일 단위로 가계대출 승인액을 점검하고 있다. 당국이 대출증가율을 6%로 제한하는 총량규제를 실시한 상황에서 은행으로서도 집단대출과 같이 규모가 큰 가계대출을 승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리테일 영업담당 부행장은 "집단대출처럼 규모가 큰 대출은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사업성이 없는 분양시장에는 접근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집단대출 규제 최소화과 집단대출 정상 취급 및 금리인상 억제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책 과제가 담긴 보고서를 각 정당별 대선 예비후보자 선거캠프에 전달했다.

보고서에서 협회 측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해 주택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서민과 저소득층을 갖춘 입찰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고,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택지비 인하 및 조세·금융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60.85 (-0.25)
- ↑ 금리 (국고채 3년) 1.65% (+0.01)
- ↑ 코스닥 630.17 (+4.68)
- ↑ 환율 (USD) 1124.40원 (+2.50)

효성, 60조 '세계 기저귀 시장' 노크

스위스 제네바 부직포 전시회 참가...위생용 스판덱스 홍보

효성은 4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부직포 전시회 '인덱스(INDEX) 2017'에 참가해 기저귀용 스판덱스를 알리고 있다고 5일 전했다.

스판덱스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효성은 이번 전시회에서 탄성과 내열성이 뛰어난 '크레오라 파워핏(Power Fit)'과 위생용품(기저귀용) 스판덱스 '크레오라 컴포트'를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또 자체 기술로 개발한 'OETO(Over End Take Off)' 기계를 전시회 현장에서 시연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효성의 우수한 기술력을 알렸다.

OETO는 기저귀에 스판덱스 원사를 공급해 주는 설비다.

제조업체가 OETO를 이용하면 기저귀 생산 공정 중에 기계를 멈추지 않고 원사를 교체할 수 있어 약 15~2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효성은 설명했다.

전 세계 기저귀 시장은 2016년 기준 약 545억달러(60조원)로 매년 8% 이상 성장하고 있다. 2021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노령화에 따른 실버산업의 성장으로 성인용 기저귀 시장도 확대돼 기저귀용 스판덱스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인덱스 전시회에는 전 세계 주요 위생용품 메이커 약 590여 개 업체가 참가했다. 관람객은 1만2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10대 그룹 직원 평균 근속 연수는 10년

기아차 20.3년 최장

10대 그룹 주요 계열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속연수는 평균 10년이었다.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가장 긴 회사는 기아차였다. 현대로템, 현대비엔지스틸, 현대차 등 현대차그룹 상장사들도 모두 상위권에 포진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공시된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10대 그룹 상장사 88곳 직원들의 근속연수 평균은 10.0년에 달했다.

그룹별로는 현대중공업그룹이 15.7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현대차그룹(12.7년), 한화그룹(12.0년), 한진그룹(10.2년), 롯데그룹(9.7년), SK그룹(9.4년), 삼성그룹(9.3년), 두산그룹(9.0년), LG그룹(8.6년) 등 순이었다. GS그룹은 7.5년으로 가장 짧았다. 10대 그룹 전체 상장사 중 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가장 긴 회사는 기아차로 20.3년이었다. 이어 현대로템(20.0년), 현대비엔지스틸(19.4년), 현대차(17.5년) 등으로 현대차그룹이 1~4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보해양조·기아차 "지역제품 사용 앞장서겠습니다"



보해양조(주) (대표이사 임지선)는 최근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와 지역제품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보해양조와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는 지역경제활성화와 불황극복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광주·전남에서 생산하는 잎새주와 기아자동차 등 지역제품 사용에 앞장서기로 합의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황보욱 보해양조 노조위원장과 박주기 금융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장 등 회사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보해양조는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 회원들이 워크숍 등 사내·외 활동을 할 때 주류와 음료 등 물품을 지원하게 된다.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는 보해양조 임·직원들이 기아자동차 차량을 구입할 경우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청년 공시생 26만명...연 17조1400억 사회적 손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많은 취업준비생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면서 사회적으로 연 17조1429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6일 발표한 '공시(공무원시험)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는 2011년 537만4000명에서 지난해 498만명으로 7.3%(39만4000명) 감소했다. 그러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은 2011년 18만5000명에서 지난해 25만7000명으로 38.9%(7만2000명)나 증가했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공무원시험 준비생(공시생) 비중은 2011년 3.4%에서 지난해 5.2%로 상승했다. 이들 공시생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공시생들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지출하는 교육비와 생활비 등은 경제의 순기능이다. 이들이 월평균 15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면 총 4조6260억원의 소비로 경제적 순기능을 일으킨다.

그러나 공시생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생산과 소비의 기회비용은 역기능이다.

생산 기회비용은 공시생 수에 취업자 1인당 평균 부가가치 생산액을 곱해 계산

했고, 소비 기회비용은 공시생 수에 20대 가구의 연평균 가계소비지출액을 곱해 계산했다. 그 결과 경제의 역기능인 기회비용은 총 21조7천689억원으로 계산됐다. 전체 경제 규모로 보면 연간 17조1429억원의 순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1.1% 규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공시생이 증가한 원인은 '질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고용창출력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사회에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퇴직자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최근 경영난 가중으로 폐업한 국내 4위 신문유지업체 '보위터코리아'의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전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노사발전재단 광주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소장 이명숙)는 5일 보위터코리아 퇴직자 20명을 대상으로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전직스쿨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직스쿨프로그램은 기업 내 퇴직(예정)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재취업지원 교육이다. 변화관리, 자기탐색, 목표설정, 구직기술, 직업세계, 플러스 등 6종 테마 30개 모듈로 구성됐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세얼굴

"부동산 동향 정확한 정보 제공"

김태훈 한국감정원 광주지사장

"세계 최고의 부동산 조사 관리와 공시 통계 전문기관으로 거듭 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일자로 한국감정원 광주지사에 선임된 김태훈(55) 지사장은 "부동산 시장의 질서 유지에 이바지 한다는 기관의 미션 달성을 위해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장은 "부동산 가격 조사를 확대하고 철저히 관리해 지자체의 부

동산 정책을 지원하고, 시·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강진 출생인 김 지사장은 1998년 1월 한국감정원에 입사한 이래 중부지점장, 심사관리실장, 대전지사를 역임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대형 웨딩홀 준공

400석 대면회장 신축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심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치맥한잔

오늘은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